# 2030포교에 새로운 활력소 발돋움

## 창립 40주년 맞은 조계사 청년회

### 평화·종교간 화합에 앞장
### 40대 고령화 맞서 회장단 개편
### 동아리 활동으로 청년불자 흡수


조계사 청년회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2030세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 오후, 대부분의 사찰은 어르신 불자들의 기도행렬로 붐빈다. 하지만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자리한 조계사는 예외다. 매주 토요일 조계사에서는 조금은 색다른 법회가 열린다.

바로 조계사 청년회가 주도하는 법회다. 조계사 청년회 토요법회가 열리는 토요일 오후 조계사 대웅전의 넓은 법당은 젊은 불자들로 가득 찬다.

2030포교의 새로운 활력소로 거듭나고 있는 조계사 청년회(회장 한정민)가 6월 3일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전국에 단 2개밖에 없는 대한불교청년회 직할 청년회인 만큼 조계사 청년회는 청년불자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1983년 제1회 통일기원 도보대행진과 2003년 이라크 반전 평화법회를 여는 등 평화사상을 알리는데 앞장섰으며 함께 1999년 제1회 중급교리 경진대회, 제1회 불교문화테마기행 등 불교 보급에도 나섰다. 또 종교간 화합에도 나서 2002년부터 이웃종교인과의 만남을 열고 있다.

이런 활동에도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회 회원들의 연령대는 평균 40대였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숫자도 40~50명 수준이었다. 최근에는 20대 중심으로 회장단이 구성되며 젊은 세대에 맞는 감성포교가 진행되고 자연스럽게 청년불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조계사 청년회는 만 18세부터 37세 이하의 미혼 남녀가 입회할 수 있으며 2개월간 신입회원 연수를 개최한다. 조계사 청년회 연수원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3명, 2011년 6명, 2012년 21명, 2013년 28명, 2014년 35명 등 청년회원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매주 화, 토요일 정기적으로 열리는 청년 법회에 모이는 청년 대다수가 20~30대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법우는 100명을 훌쩍 넘는다.

많은 사찰의 청년회가 신입회원은 물론 기존회원도 이탈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조계사 청년회의 활성화 원인은 무엇일까.

조계사 청년회는 도반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정기법회를 열고 있다. 화요법회가 직장인 위주의 기도와 치유 법회에 가깝다면 토요법회는 법문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스토리텔링 법회로 진행된다. 150여 명의 정회원들은 한 달에 세 번 이상, 한 법회에 참석해야 한다. 화요법회는 직장인 도반들끼리 함께 법회에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치유할 수 있기에 참석률이 높다.

또 조계사 청년회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예불수행부, 참선수행부, 사찰문화부, 찬불수행부, 생활불교부 등 총 5개 부서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마음비추기(참선), 불화반, 반야율동단 등 동아리활동도 진행 중이다. 특히 동아리 활동은 지역사찰, 외부기관 공연으로 이어지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회원 90%가 25세~35세인 청년불자들로 휴식과 취미활동도 수행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향후 조계사 청년회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 계획이다.

한정민 조계사 청년회장은 "청년 모임이다 보니 전통적인 법회나 수행도 중요하지만 불교를 통해 청년다움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높게만 쌓여있던 사찰의 담을 낮추고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기도 수행의 자리를 마련해 긍정적인 기운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계사 청년회가 6월 3일 개최한 40주년 기념식에서는 40년을 지켜온 조계사 스님들과 조계사 청년회 출신 스님들에 대한 승보공양과, 청년회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청년회 회원들의 첼로, 합창, 율동 등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노덕현 기자

# 저잣거리 포교 '열린선원' 개원 12돌 맞다

## 6월 11일 법회,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특별법문



2005년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역촌중앙시장 안에는 작은 선원이 문을 열었다. 시장을 찾는 이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지근거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열린선원(선원장 법현)이다.

저잣거리 수행전법도량으로 유명한 열린선원이 6월 11일 개원 12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특히 이번 개원법회에는 이례적으로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이 법사로 나서 법문한다. 이날 법회에는 김우영 은평구청장, 박주민 · 강병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며 가수 박희진, 국악인 노은주, 무용가 박경희, 풀피리전국회장 성수현, 가람합창단 등의 공연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아울러 쉽고 재미있게 부처님 가르침과 법회의식, 찬불가를 담은 〈가피수행 불교성전〉의 출판법회도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열린선원에서는 '의식(意識)있는 의식(儀式)' 을 주제로 한자와 산스크리트어 등으로 된 의식의 한글화를 추진해왔다.

열린선원은 반야심경 독송을 비롯한 기존 법회의식과 달리 매회 법회 주제와 맞는 경전 구절을 채택해 독송한다. 예를 들어 불공, 시식을 하기 전 천수경을 공통적으로 독송하지만 열린선원에서는 생일불공 등 건강을 기원할 때는 약사여래 관련 경문을 읽는다.

법현 스님은 "자주 읽는 경전 일부를 함께 엮어서 불자들이 가정에서 읽거나 사찰의 법회에서 인용하도록 경전과 찬불가를 함께 엮어서 스님이나 불자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라며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방편으로 세운 것이 열린선원인 만큼, 불교 대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은 태고종 총무원 총무 · 교무 · 사회부장과 교육부원장을 역임했으며, '차례에 술 대신 차 올리기' 캠페인과 한글불교의식, 참선 생활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권위, 협치회 등 활동과 '4차산업혁명과 윤리' 민관협의체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 "어르신들이 가상현실 영화도 제작해요"

## 서울노인영화제 VR프로젝트 눈길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VR을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눈길을 끈다. 서울노인영화제 집행위(위원장 희유)는 어르신들이 뉴미디어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기획,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 '이상한 나라의 가상현실 기획단'을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VR 프로젝트는 서울노인영화제 특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VR콘텐츠를 제작해, 오는 10월 25일 부터 28일까지 4일간 열릴 '제10회 서울노인영화제' 에서 상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노인영화제 집행위는 5월 16일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탑골영화관에서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이해와 제작' 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에는 제10회 서울노인영화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는 손지현 씨가 나서 VR의 의미부터 미국 등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사례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다.

집행위원장 희유 스님은 "어르신들이 VR을 단순히 체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직접 기획, 제작과정에 참여해 스스로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며 "서울노인영화제가 이 과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0회 서울노인영화제는 10월 2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4일 간, 서울 일대의 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동련, 전국어린이 지도자연수회 개최




동련(이사장 성행)은 6월 10~11일 보은 속리산유스타운에서 '제62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를 개최한다. '동심으로 마음의 눈을 활짝!' 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어린이 입장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이 진행된다.

연수회에서는 이틀간 불교상담개발원 이사 혜타 스님의 '명상을 통한 인성교육' 을 비롯해 △설영일 모던이벤트 대표의 '여름불교학교 율동놀이' △이대성 가온평생교육원장의 '우리는 하나-팀별 보드게임' △이영주 행복한 평생교육원장의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대화법' △이현미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심사관의 '손으로 만드는 부처님 세상' 등이 진행된다.

동련 이사장 성행 스님은 "어린이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라며 "연수회에서 지도자들이 동심으로 돌아가 다양한 눈높이 지도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51)864-4665 노덕현 기자

# 군종교구, 쌍호정사 관음상 점안법회 봉행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5월 29일 인제 육군 2사단 17연대 쌍호정사에서 평화의 종 타종식과 석조관세음보살상 점안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남해 보리암 주지 능원 스님, 1군사령부 원주 법웅사 주지 보운 김종봉 법사와 김병주 3군단장, 이순선 인제군수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군종교구는 이에 앞서 4월 27일 쌍호정사 재건축 낙성법회를 봉행한 바 있다. 이날 석조로 조성된 관세음보살상은 좌대 1m 40cm에 보살상 2m 60cm로 남해 보리암 능원 스님의 시주로 조성됐다.

산사음악회는 사단 군악대의 아바 메들리, 대금연주를 시작으로 성악과 소조밴드 공연, 색소폰 연주가 진행됐으며 정우 스님의 초청으로 뮤지컬 배우인 남경주, 최정원의 공연도 진행됐다.

정우 스님은 "지역주민과 쌍호부대 장병들과 함께 음악회를 마련하여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대출이자 1.8% 신용등급 7등급이하도 가능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MICRO CREDIT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무담보 저금리대출사업으로
사업자의 자활을 돕는 금융지원사업입니다.

신청절차

상담 (전화 및 방문) ▸ 신용정보조회 (적격여부확인) ▸ 서류작성 및 첨부서류준비 ▸ 현장실사 (사업장 방문) ▸ 선정심의 ▸ 신용보증재단 금융심사 ▸ 우리은행 자금지원 (대출승인)

*신청일로부터 4~5주 소요



신청문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경영부문
• 대표번호 : 02-723-5101
• 직통번호 : 02-723-3750 / 02-6334-2221
• 팩 스 : 02-6455-2047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